손흥민 뚫고·김민재 막고 … 존재감 빛났다

12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최종예선 A조 4차전 대한민국 대 이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선제골을 넣은 뒤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월드컵 아시아 A조 최종예선, 이란과 1-1 무승부

손흥민 '원정팀 지옥' 아자디에서 12년만에 한국인 득점

복병 시리아를 상대로 극적인 결승 골로 한국 축구를 위기에서 구했던 손흥민(29·토트넘)이 '원정팀의 지옥'으로 불리는 이란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 골대에 12년 만에 한국의 득점을 남겼다.

손흥민은 지난 12일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4차전 원정경기에서 후반 3분 경기의 첫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의 94번째 A매치에서 나온 29번째 골이다.

최근 2년 동안 대표팀에서 '필드골 가뭄'에 시달렸던 손흥민은 7일 안산에서 열린 시리아와의 3차전에서 1-1로 맞선 후반 44분 결승 골을 넣은 데 이어 이날은 난적 이란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해 이번 소집 2경기 모두 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의 A매치 2경기 연속 골은 2018년 6월 러시아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멕시코, 독일전 이후 3년여 만이다.

특히 이번 골은 한국 축구에 난공불락의 원정지로 여겨진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터져 의미가 더 컸다.

한국은 이란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없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아자디 스타디움에서는 최근 3연패를 당하는 등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다.

득점도 당연히 어려웠다. 1977년 열린 아르헨티나 월드컵 예선(2-2 무승부)에서 이영무가 두 골을 넣은 뒤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A매치에서 한국은 30년 넘게 골 맛을 보지 못했다.

2009년 2월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박지성이 동점 골을 터뜨리며 1-1 무승부를 기록한 뒤에도 다시 무득점이 이어졌다.

그리고 12년이 흘러 세계적인 공격수로 우뚝 선 손흥민이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특유의 결정력으로 골을 만들어냈다.

이재성(마인츠)의 정확히 보낸 침투 패스에 뒷공간을 허문 손흥민이 페널티 아크 쪽으로 드리블하며 접근한 뒤 절묘하게 찬 오른발 슛이 앞으로 나와있던 상대 알리레자 베이란반드 골키퍼 옆으로 흘러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

이란과 팽팽히 맞서면서도 결정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지는 못하던 한국의 첫 유효슈팅과 득점이 모두 그의 발에서 나왔다. 손흥민 개인에겐 이란과의 A매치 7번째 맞대결 만에 터뜨린 첫 골이기도 했다.

한국이 후반 31분 알리레자 자한바흐시에게 동점 골을 내주고 1-1로 비기면서 손흥민의 골이 아자디 원정 첫 승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손흥민은 경기를 마치고 현지 취재진에 "이란과 쉽지 않은 경기를 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란도 최선의 경기를 보여줬다"며 "이기지 못해서 슬프다"고 소감을 밝혔다.

'47년 아자디 무승 징크스'를 깨뜨릴 절호의 기회를 놓친 아쉬움은 남았지만, 그동안 대표팀에서 부진하다는 평가를 들은 손흥민에겐 소득이 없지만은 않은 2연전의 마무리였다.

소속팀 토트넘에서 공식전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로 연패 탈출에 앞장선 뒤 잇단 장거리 이동을 견뎌내고 대표팀에서도 기세를 이어가며 향후 활약의 기대감을 키웠다. /연합뉴스

'통곡의 벽' 김민재 몸값 3배 뛰었다

추정 이적료 28억원→89억원

터키 프로축구 무대 입성과 동시에 최고의 활약을 펼친 '괴물 수비수' 김민재(25·페네르바체)의 몸값이 3배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축구 선수 이적료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마르크트'가 13일 터키 쉬페르 리그 선수들의 몸값을 새로 책정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김민재의 추정 이적료는 650만 유로(약 89억원)였다.

이는 트랜스퍼마르크트가 김민재가 베이징 궈안(중국) 소속이던 12월 27일 계산한 추정 이적료 200만 유로(약 28억원)의 3배를 넘는 액수다. 몸값이 225%나 폭등했다.

몸값이 오른 폭(450만 유로)은 쉬페르 리그 소속 선수 중 김민재가 가장 컸다.

김민재와 함께 페네르바체 최후방을 책임지는 어틸러 설러이가 김민재 다음으로 높은 400만 유로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설러이의 몸값은 1100만 유로(약 151억원)로 쉬페르 리그 수비수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재가 유럽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건 올 시즌부터다.

지난 8월 14일 페네르바체에 입단해 정규리그 7경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2경기를 뛰었다.

입단과 거의 동시에 주전 센터백 자리를 꿰차고서 연일 철벽 수비를 펼쳐 현지 언론과 팬들로부터 호평받았다. 기간으로는 2달, 출전 경기 수로는 9경기 만에 몸값을 확 끌어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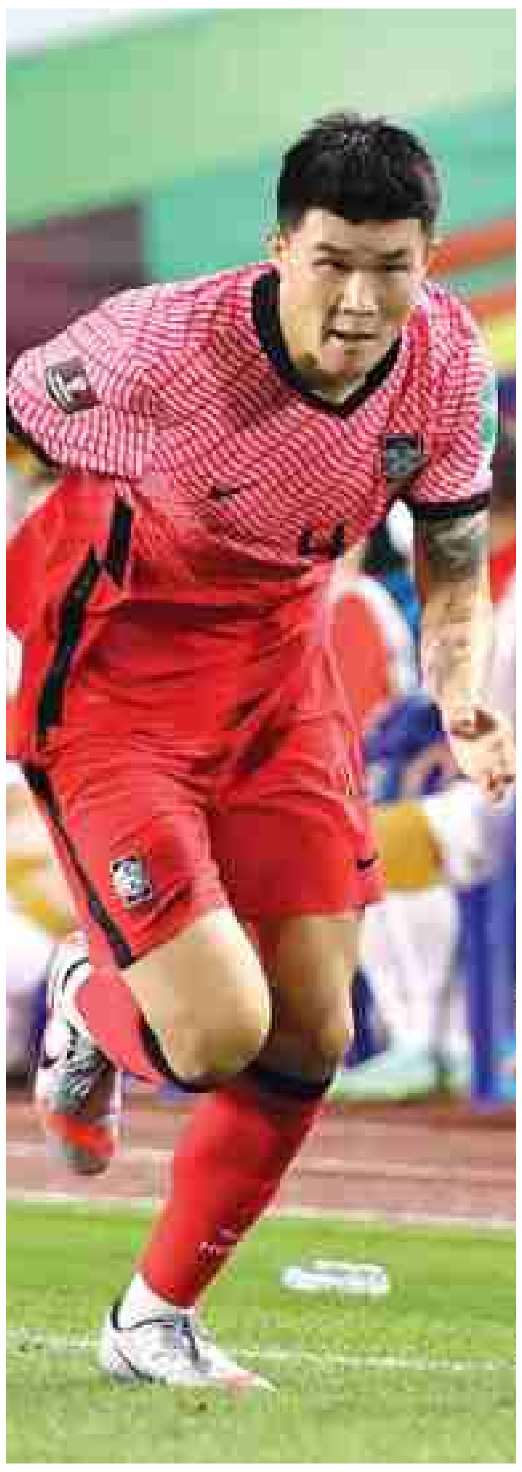
대표팀에서의 활약도 눈부시다.

뒷문을 단단하게 잠가주는 김민재 덕에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서 이란에 이어 A조 2위에 자리해 있다.

김민재는 13일 이란과의 최종예선 4차전(1-1 무승부)에서도 빛나는 활약을 펼쳤다.

물샐틈없는 수비를 펼친 것은 물론 기회가 날 때마다 공격적인 빌드업으로 벤투호가 승점 1점을 따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김민재가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지금의 경기력을 이어간다면 빅리그 입성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김민재

전남 '수문장' 김다솔 K리그2 33R 베스트 11

전남드래곤즈의 '수문장' 김다솔(사진)이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3일 K리그2 33라운드 베스트 11을 선정해 발표했다. 서울이랜드와 홈경기에서 1-0 무실점 승리를 이끈 김다솔은 골키퍼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은 지난 9일 서울이랜드와 홈경기를 가졌고, 후반 종료를 앞두고 나온 이종호의 페널티킥 골로 1-0 승리를 거두며 준플레이오프 '9부 능선'을 넘었다.

김다솔은 14차례 슈팅을 날린 서울이랜드의 공세를 잘 막으면서 무실점으로 팀 승리를 지켰다.

한편 33라운드 MVP는 해트트릭으로 대전하나시티즌의 준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한 마사에게 돌아갔다.

마사는 안산그리너스와 홈경기에서 전반 41분 오른발로 득점에 성공한 뒤 3분 뒤 오른발 발리 슈팅으로 멀티골을 기록했다.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 전개된 역습 상황에서 원기종의 패스를 받아 세 번째 골을 넣으며,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프로 첫 해트트릭을 기록한 마사의 활약에 대전은 4-1 승리를 거두면서 남은 3경기 결과에 상관 없이 4강을 확정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장현식 "조급함 내려놓고 '홀드왕' 도전"

21홀드 … 팀 최다 홀드 타이 기록

"타자들이 만들어 준 기회를 소중하게 지키고 싶다"며 장현식이 '홀드왕'에 대한 욕심을 밝혔다.

KIA 타이거즈의 장현식은 후반기 가장 뜨거운 이름 중 하나다. 지난해 아쉬움을 털어내는 활약을 하면서 팀의 필승조로 자리를 굳혔고, 1위 팀 KT의 주권과 치열한 홀드왕 경쟁을 하고 있다.

달라진 실력으로 눈길을 끈 그는 최근 4연투 강행군에 나서는 등 많은 이닝을 소화하면서 우려의 시선도 받고 있다.

장현식은 "예전 같으면 가을 야구를 준비하는 시기인데 아직도 2주 가까이 시즌이 남은 게 긴 것 같기도 하고, 짧은 것 같기도 하다"며 "겨울을 잘 보내기도 했고 휴식기도 있었다. 1년 내내 꾸준히 운동한 덕분에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체력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했고 여기에 '경험'이 더해지면서 장현식은 2021시즌에 날개를 달았다.

장현식은 "너무 잘하려고 안 하고 아웃카운트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다. 좋은 결과를 힘들지 않게 낼 수 있도록 신경 쓴다"며 "(홀드) 상황에서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는 것 같다. 못하는 기간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 공을 많이 안 던지고 빠르게 승부를 하려고 한다. 그게 쌓이다 보니까 잘 되는 것 같다. 전반기, 후반기 차이가 심했다. '전반기부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시즌을 완주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 장현식은 내년 시즌까지 생각하면서 남은 시즌을 보내겠다는 생각이다.

장현식은 "몸은 괜찮다. 이미 내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계획을 잡고 있다. 분명히 올해 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철저하게 안 하면 내년 시즌 더 잘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것이다"며 "몇 경기 안 남았고 몸이 안 좋다고 느끼면 먼저 중단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장현식은 지난 9월 15일 롯데와의 더블헤더 2차전에서 21번째 홀드를 수확하면서 심동섭이 보유하고 있던 타이거즈 최다 홀드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팀 내 타이 기록을 만들었을 때 장현식은 "홀드왕에 대한 욕심은 없다. 하다 보니까 된 것이다"고 이야기했지만 한 달가량이 지난 지금 '욕심'이 생겼다.

장현식은 "그때는 욕심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홀드가 더 쌓이니 조금씩 욕심이 생긴다.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려 하니 욕심을 안낼 수가 없다"면서도 "그런데 주변에서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 안 된다고 하더라(웃음). 잘 던지는 것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기까지 온 것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욕심은 있지만 욕심을 버리고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게 장현식의 생각이다.

장현식은 "점수 안 주려고 하면 더 주는 것 같다. 편하게 하자 생각하면 더 점수를 안 주는 것 같다. 점수를 주더라도 잘 막고 내려가자는 생각으로 편하게 한다. 조급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상대가 더 조급하게 하는 것 같다"며 "타자들이 만들어준 (홀드) 상황을 소중하게 잘 막아내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시즌을 끝내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